

오늘은 수능 후기 시리즈 4 탄으로 돌아온 '파급 효과'입니다.

수능 4 교시 한국사 및 과탐 솔직하고 자세한 후기를 들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후다닥 썼습니다.

프사와 배경 사진도 드디어 깔았어요!!!

수능 0, 1 교시 후기 ---> <https://orbi.kr/00018889587>

수능 2 교시 후기 ----> <https://orbi.kr/00018924578>

수능 3 교시 후기 ----> <https://orbi.kr/00018946049>

자 시작합니다.

영어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끝난 후 방송에 따라

한국사 시험지만 받습니다.

한국사

고 1 때 공부한 내용도 기억나고

많이 좋아하는 과목이어서 수능을 떠나 재밌게 풀었습니다.

평가원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평가나 해볼까 마인드로 풀었습니다.

한국사는 몰라도 잘 알아도 푸는 시간이 5분을 넘어가진 않죠.

한국사 푸는 팁을 알려드리자면

자료가 나온 시대를

대충 삼국 시대, 통일 신라,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1910, 1920, 1930 구별), 현대 정도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에 있는 사건이 어느 시대인지 판단합니다.

한국사는 대부분 "다음 중 알맞은 것은?"이 많기 때문에

선지와 자료 시대가 같으면 거의 답입니다.

물론 한 3-4 문제는 2 개 이상 선지가 같은 시대인 경우가 있지만

이거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아도 충분히 3 등급 이상 가능합니다.

(아 물론 저는 선지 내용을 거의 다 알긴 했는데

빠르게 한국사 3 등급 이상을 쟁취하시기 위한 분들을 위한 팁입니다.)

또 다른 팁은 한국사는 개수비가 거의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3-4 문제 이상 모르는 경우 개수비 이용해 찍을 시

너무 위험하니 추천 드리지는 않습니다.

1-2 문제 정도만 모를 경우 사용하시면 될 듯합니다.

결론은 한국사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50 점.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동사서독 님이 정말 역사 전문가이신 만큼

2 개의 칼럼으로 한국사 나올만한 내용들만

잘 요약 해주셨습니다.

한국사 공부 안해서 불안해 하지 마시고 이거 정도 읽고

17 년도 이후 평가원 기출정도만 양치기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동사서독님 감사합니다!!!

<https://orbi.kr/00018902995>

<https://orbi.kr/00018927818>

또 꼬닥꼬닥님도 잘 정리해주셨더라고요.

꼬닥꼬닥님 감사합니다!!!

<https://orbi.kr/00018954791>

과탐 (지 1, 생 2)

이제 방송과 감독관 말씀을 어느 때보다 잘 따르셔야 합니다.

평소 모의고사 때처럼 탐구 시험지 묶음채로 배부하고

자신의 선택 과목 시험지만 빼놓고 나머지는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감독관 3 분이 계시고 탐구 시작 전 알아서 회수해 가십니다.

파본 검사를 한 후 (이 때는 시간이 짧아서 자세히 볼 시간은 없습니다.)

봉투를 받으시면 나중에 보는 탐구 시험지를 넣으시면 됩니다.

탐구 보는 순서 정말 헷갈리지 마세요.

순서 바뀌면 인정 사정 없이 바로 부정행위 처리됩니다.

매년 수능 때마다 제일 흔한 부정 행위로 뽑힙니다.

4 교시인만큼 너무 힘들거나 멘탈이 나가서

실수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하세요.

2 분 동안 눈풀 하실 분들은 실수 안하실 자신 있다면 하셔도 돼요.

저는 눈풀도 하고 직접 표시도 하긴 했습니다. 개인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탐구 시작입니다.

지구과학 1

저는 지구과학 1 수능 준비같은 경우

3학년 지구과학 2 내신 때문에 7월에 뒤늦게 개념 강의부터 시작해서
영어, 한국사와 마찬가지로 독학했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좋아하는 과목이고 베이스를 잘 쌓아서 1등급은 항상 받았습니다.

개념 강의는 무료로 ebsi 최선목 선생님 꺾 들었습니다.

오르비 평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강의를 짧고 많아서 괜찮습니다.

개념 강의는 ebs 수특, 수완, 기출을 병행했기 때문에

수능이 연기 되기 전 기준 일주일 전에 끝냈습니다.

실모는 ebs 수완, 봉투 모의고사에 있는 정도만 풀었어요.

이래도 상관없는게 다른 탐구 과목은 모르겠는데

지구과학 1 선지는 ebs 수특, 수완, 평가원 기출 안에서만 나옵니다.

공부 과정은 이쯤 설명하고 본격적인 후기로 들어 가겠습니다.

즐겁게 풀려 했는데 1 페이지 5번 (ㄷ)부터 약간 막혔어요.

하지만 해구, 해령 위치를 알아서 그리니 쉽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마리아나 해구가 A 근처에 있어서 나이가 매우 많다는 것도

배경 지식으로 알았어요. (수특 답지 내용)

그 다음으로 막힌 문제는 7번 (ㄱ) '성산 일출봉은 수성 화산 분출이다.' 이었어요.

내신 때 지구과학 2를 한 게 도움이 은근 많이 된 거 같아요.

지구과학 2를 알면 가끔 지구과학 1에서 나오는 지엽적인 선지들이

뇌피셜 논리로 잘 해결이 됩니다.

지구과학 2를 끌어오고 성산일출봉의 평평한 윗부분을 보니

바다 안에서 화산이 분출되었다가 물이 빠지면서

풍화에 의해 오랫동안 침식되어 평평하게 변한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이게 맞는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그래서 맞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애매한 선지들을 지구과학 2 개념들에

끼워 맞춰 해석하니 의외로 다 맞았습니다.

정말 신기했고 수능 때도 큰 이변이 없던 것 보면 맞는 방법인 듯 합니다.

지금 예비 고 3인 고 2라면 지구과학 지엽 선지들 대비로 암기를 막 하고 싶지 않다면

지구과학 2의 1단원 정도는 공부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지구과학 1에서 2문제나 막혀

약간의 시간 압박 때문에 19번 문제 해석이

눈에 딱 안들어 왔고 일단 넘어갔습니다.

20 번의 (ㄷ) 보기도 만만치 않더군요. 하지만 쉽게 풀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전에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이
최선목 쌤인가 오지훈 쌤 모의고사 문제를 들고 와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그 문제가 20 번 (ㄷ) 보기와 같았습니다.
이 때 질문 답해줄 때도 문제가 너무 참신해서 신기해서 기억이 오래 남았네요.
저에게 질문해준 그 친구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수능장에서는 특별한 생각이 잘 안 떠오르기 때문에
20 번 (ㄷ) 보기 같은 경우 처음 보면 당황할 것 같아요.
이렇게 20 번까지 풀고 5 분 남았고 마킹을 하고 19 번으로 돌아왔습니다.
개수비를 따져보니 19 번 답은 5 번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안정되자 9 월 22 일 추분날이라는게 쉽게 보였고
풀어서도 답을 5 번으로 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13 번 낚여서 47 점 받았습니다. ππ 망원경
계속 1 등급은 나왔지만 원점수는 이 때 제일 높았네요.
꽤나 까다롭다고 생각했는데 1 등급 컷이 높았어요.
수능 일주일 연기와 고인물들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과탐이든 사탐이든 1 등급 받으시려면
50 점 받을 각오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수능 때 겨우 겨우 1 등급 받는것 같아요.**

생명과학 2

생명과학 2 같은 경우도

영어, 한국사, 지 1 과 마찬가지로 수특, 수완, 기출로 독학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2 과목은 뚫리지 않는 벽 같은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ππ

서울대 가시려고 2 과목 선택하려는 예비 고 3 여러분 제발 2 번, 3 번 더생각하세요.

서울대 가려고 2 과목 선택하다가 2 과목 선택해서 대학을 못갑니다.

별 각오 없이 막 덤비면 안됩니다. 정말 엄청난 각오와 고 3 을 말그대로

불태울 노력으로 해야합니다. 심사숙고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물론 요즘 2 과목 선택자가 줄어서 서울대 컷이 약간은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2 과목 선택자 중 정시로 서울대 가는 비율이 1-1.5%밖에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선택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만 신중해야합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생 2 에서 털려서 할 말이
많아졌던 점 정말 죄송합니다.

지구과학 1 시험을 잘 마무리 했다는 생각에 기분 좋게 문제 풀기 시작했습니다.
풀기 전 딱 봐도 킬러가 몇 번에 있는지 확인하고 킬러를 건너뛰고 풀었습니다.
킬러 4 문제를 제외하고 다 풀고 시간이 10 분~12 분 정도로 남았습니다.
킬러 중 2 점짜리 건드리다가 잘 안돼서
마지막 1 분 전까지 집중해서 20 번 하디바인을 도전했고 성공했습니다.

나머지 3 문제를 틀려서 42 점 받았습니다.
표본 수준이 장난 아닌만큼 저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등급컷은 높았고
3 등급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냥 떨지 않고 마지막 1 분까지 시험에 임한 제 자신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나와서 부모님과 시험 어떻게 봤는지 얘기를 하며...
그 날 저녁은 치킨을 먹고.....
집에 와서 채점하면서
국어가 너무 잘 나와서 놀라고..
수학은 실수 안해서 안도하고.....
영어, 한국사는 다 맞아서 나름 기분 좋고.....
지 1 은 망원경 닦여서 약간 아쉬웠지만
실력이니 그냥 받아들이고
생 2 는 찍은게 하나도 안맞아 아쉬웠지만
뭐 실수 안한게 어디냐며 받아들였던 것 같네요.

그리고 밤 새서 과탐 등급컷까지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네요.

결론은 실수만 안해도 90%는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자료도 그렇고 후기도 그렇고 저는 프로 ebs 충입니다.
제 주변 친구들이 영어 듣기 수특까지 하는 저를 보고 ebs 충이라고 했고
이렇게만 하면 평가원이나 수능은 잘 볼 수가 없다고 했지만 뭐 결론적으로 잘 봤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재학생, n 수생 통틀어서 수능 제일 잘 봤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의고사는 잘보면 10-15 등 정도 했었어요.
문이과 통틀어서 유일하게 정시로 sky 뚫었습니다.

뭐 제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남이 뭐라고 하든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확실한 주관을 가지면 됩니다.
남과 경쟁하지 말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만 공부하면 됩니다.
~~ebs 관계자 분들은 ebs 를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는 지 알고싶으시다면 연락주세요 ㅎㅎㅎ~~

마지막으로 제가 간 현강 질문들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외국에 꽤 오래 있어서 현강 말

속도가 너무 빨라 못 따라잡아 인강으로 대부분 해결했습니다.

인강은 멈추면서 들을 수 있는게 너무 좋은점 같아요.

인강 패스들도 여러 개 있었는데 대학 합격 후 원금 회수 했습니다.

유일하게 간 현강은 이창무 쌤 현강입니다. 이창무 쌤은 속도가 괜찮았어요.

나머지 디테일한 커리에 관해서는 요청이 들어올 시 자세히 적거나 쪽지, 댓글로 알려드립니다.

18 수능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름 쓰면서 추억에 잠겼네요.

그 동안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19 수능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이나 쪽지들은 내일 저녁 쯤에 답변 드릴게요 ^^

제가 과제하고 퀴즈 보러 가야합니다. ^^^^

내일 지옥의 사형제

미적분 과제+미적분 연습반+선대개 퀴즈+선대개 연습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늘 열심히 달려야할 것 같네요.

제 자료 써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루에 10-20 분에게 쪽지 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확통 수특 다 풀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모두 안녕히 계세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유용하실수도 있는 링크들

<https://orbi.kr/00018912302> ----> 수능 완성 기하와 벡터 선별, 관련 기출 및 실전적 꿀팁들

<https://orbi.kr/00018889587> ----> 18 수능 0,1 교시 후기

<https://orbi.kr/00018874580> ----> 18년 실시 교육청, 평가원 기출 선별

<https://orbi.kr/00018868599> ----> 수능 완성 미적분 2 선별, 관련 기출 및 실전적 꿀팁들

<https://orbi.kr/00018852528> ----> 수능 특강 미적분 2, 기하와 벡터 선별 문제, 관련 기출

<https://orbi.kr/00018839767> ----> (경험담)수능 때 기적이라는게 있을까?

<https://orbi.kr/00018834366> ----> 수능날 주민등록증을 안가져왔다면? (경험담)